

# ICT산업

## 2023년 3분기 동향

- I. 반도체
- II. 디스플레이
- III. 휴대폰
- IV. 향후 전망

### 작성

선임연구원 이미혜 (6252-3608)





## < 요약 >

### I. 반도체

**3분기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28.8% 감소, 전분기 대비 9.4% 성장했으며 1분기를 저점으로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됨**

- (세계시장) D램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25.9% 감소, 전분기 대비 18.0% 증가한 134.8억 달러, 낸드플래시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31.9% 감소, 전분기 대비 2.9% 증가한 93.4억 달러 기록
-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IT기기 수요둔화, 메모리반도체 가격하락 등으로 5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했으나 PC·모바일용 반도체 재고조정 마무리 등으로 전분기 대비 수요 환경이 개선됨
- (가격) 3분기 D램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54.1%, 전분기 대비 6.4% 하락한 1.31달러, 낸드플래시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13.2%, 전분기 대비 0% 하락한 3.82달러를 기록
- (수출)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3% 감소한 262억 달러 기록, 5분기 연속 역성장

### II. 디스플레이

**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6분기만에 성장세로 전환**

- (세계시장) LCD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15% 성장, OLED 시장은 스마트폰 패널 출하량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TV 패널 수요 부진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.7% 역성장
- (가격) LCD TV 패널 가격은 3분기까지 상승했으나 10월부터 하락세로 전환, OLED TV 패널 평균 판매가격은 3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.5% 상승했으나 10월부터 하락
- (수출)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0.8% 감소한 60.2억 달러 기록, 코로나19 특수가 사라지면서 5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

### III. 휴대폰

**(휴대폰)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0.1% 감소한 3.0억 대를 기록**

- (세계시장) 개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했으나 중국, 미국, 유럽의 스마트폰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9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
- (출하량) 상위 3개 기업중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만 역성장했으며 애플과 샤오미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2.5%, 2.4% 증가
- (수출) 휴대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2% 감소, 전분기 대비 23% 증가한 31억 달러 기록



#### IV. 향후 전망

**반도체산업은 메모리반도체 업황의 풍향계 역할을 담당하는 마이크론의 4분기 실적(9~11월)이 예상치를 웃돌아 메모리반도체산업 업황개선을 기대**

- 마이크론은 메모리반도체기업중 가장 빨리 실적을 발표하여 메모리반도체 업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6개 분기만에 전년동기 대비 성장세로 전환
- 마이크론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6%, 전분기 대비 18% 증가한 47억 달러를 기록
- 마이크론은 2024년 1분기 매출(12~2월)이 전년동기 대비 38~50%, 전분기 대비 약 8~17%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메모리반도체 업황의 지속적 개선을 기대
- AI의 성장 등으로 2024년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2025년에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

**중국의 중소형 OLED 패널 시장점유율(출하량 기준)이 2023년에 40%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4년에는 한중간 중소형 OLED 경쟁이 심화될 전망**

- 중소형 OLED 패널 출하량 기준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22년 70.2%에서 2023년 57.1%,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동기간 28.1%에서 41.4%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
- 2023년 중소형 OLED 패널 출하량은 전년 대비 6%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기업의 출하량이 전년 대비 57% 증가하면서 출하량 증가를 견인
- 중국은 중소형 OLED 생산능력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저전력 LTPO (Low Temperature Polycrystalline Oxide, 저온다결정산화물) 양산 기술 등을 확보

**2023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3.5%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4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3.8% 증가할 전망**

- 2023년 4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연말 쇼핑 시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7.3% 증가하나 2023년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3.5% 감소할 것으로 추정
- 2024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On-Device AI 탑재 등으로 전년 대비 3.8% 증가할 전망



## I. 반도체

**(세계시장) 3분기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28.8% 감소, 전분기 대비 9.4% 성장했으며 1분기를 저점으로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됨**

- 3분기 세계 D램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25.9% 감소, 전분기 대비 18.0% 증가한 134.8억 달러, 낸드플래시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31.9% 감소, 전분기 대비 2.9% 증가한 93.4억 달러 기록
-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IT기기 수요둔화, 메모리반도체 가격하락 등으로 5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했으나 PC·모바일용 반도체 재고조정 마무리 등으로 전분기 대비 수요 환경이 개선됨
- PC 출하량은 8분기 연속 역성장했으나 계절적 성수기 진입 등으로 하락폭은 감소되는 추세이며 바닥은 지난 것으로 추정
  - \* PC 출하량 증감률(전년동기 대비, %): (23.1분기)△30.0% → (2분기)△16.6% → (3분기)△9.0% (가트너)
- 스마트폰 출하량은 9분기 연속 역성장했으나 물가상승률 둔화 등으로 소비 심리가 소폭 개선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0.1% 감소에 그침
- 서버용 반도체 수요는 북미 대형 클라우드의 AI서버 구매는 확대되었으나 일반 서버 투자는 고금리 등으로 위축되면서 일반 서버용 수요는 상대적으로 약세
- AI서버 투자 확대 등으로 고부가 D램인 고대역폭메모리(HBM), DDR5(Double Data Rate 5)<sup>1)</sup> 등의 수요가 증가했으며 기업용 SSD(eSSD)<sup>2)</sup> 시장규모도 전분기 대비 4.2% 성장
- HBM은 다수의 D램을 적층하고 실리콘관통전극(TSV, Through Silicon Via)으로 빠른 속도를 제공한 제품으로 D램 가격 대비 약 5~7배 높음

세계 D램 시장규모



자료: 트렌드포스.

세계 낸드플래시 시장규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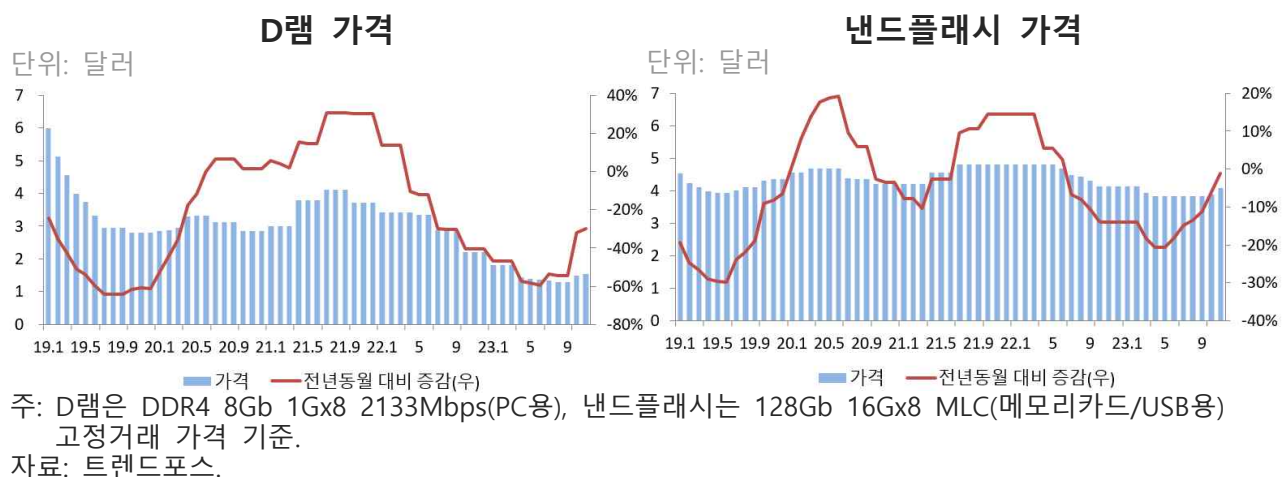
1) DDR5는 DDR4 대비 고속(2x), 저전력 등의 장점을 보유

2) Enterprise SSD(Solid State Drive)로 낸드플래시가 핵심 부품



## (가격)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은 주요 기업의 감산<sup>3)</sup>, 가격인상 등으로 10월부터 반등

- 3분기 D램 가격\*은 전년동기 대비 54.1%, 전분기 대비 6.4% 하락한 1.31달러, 낸드플래시 가격\*은 전년동기 대비 13.2%, 전분기 대비 0% 하락한 3.82달러를 기록
  - \* D램은 DDR4 8Gb 1Gx8 2133Mbps(PC용), 낸드플래시는 128Gb 16Gx8 MLC(메모리카드/USB용) 기준
- 반도체 수요기업은 2022년 상반기에 공급망 붕괴 우려 등으로 반도체 재고를 축적했으나 2022년 중반부터 IT기기 수요가 급감하면서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하락
- 주요 반도체기업의 감산발표, 재고조정 등으로 9월 D램 가격은 전월 수준을 유지, 낸드플래시 가격은 4월부터 9월까지 동일 가격을 유지
  - SK하이닉스의 재고자산은 감소하고 있으며, 삼성전자 DS부문의 재고자산도 전분기 수준을 유지
    - \* SK하이닉스의 재고자산: ('23.1분기)17.2조원 → (2분기)16.4조원 → (3분기)14.9조원
    - \* 삼성전자 DS부문 재고자산: ('23.1분기)31.9조원 → (2분기)33.7조원 → (3분기)33.7조원
- 메모리반도체 가격은 10월에 상승세로 전환했으며 11월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각각 29.9%, 1.2% 낮은 수준으로 회복
- D램 가격은 8~9월 1.30달러를 저점으로 10월 1.50달러, 11월 1.55달러로 상승, 낸드플래시 가격은 9월 3.82달러에서 10월 3.88달러, 11월 4.09달러로 상승
  - 2분기 낸드플래시의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은 △66%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가격인상을 추진
- 2024년 1분기 메모리반도체 가격은 재고축적 수요 회복 등으로 전분기 대비 상승할 전망
- 모바일용 메모리반도체 가격은 스마트폰 기업의 메모리반도체 재고 확보 등으로 전분기 대비 18~23% 상승할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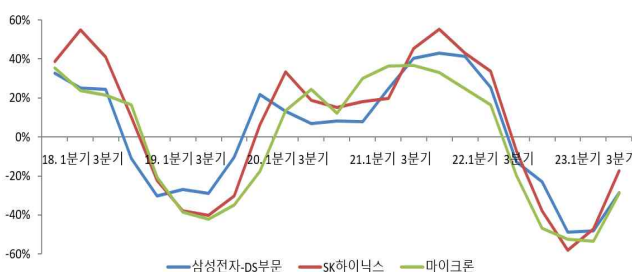
3) SK하이닉스는 2022년 4분기부터 감산, 삼성전자는 4월에 반도체 감산을 공식화했으나 의미 있는 수준으로 재고가 감축되지 못하자 양사는 7월에 추가 감산을 발표



## (기업)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2023년 1분기에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3분기에는 저점을 지난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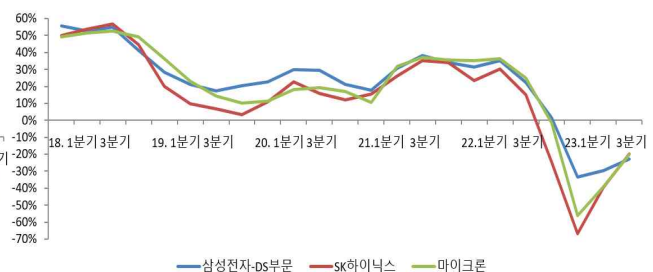
- 3분기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7% 이상 감소했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11% 이상 성장
- 삼성전자의 DS부문<sup>4)</sup> 3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8.6% 감소, 전분기 대비 11.6% 증가한 16.4조원을 기록, 매출은 1분기 13.7조원을 저점으로 점진적 개선
- 메모리반도체 매출(매출 비중 64%)은 전년동기 대비 30.9% 감소, 전분기 대비 17.4% 증가한 10.5조원을 기록
- 비메모리반도체 매출은 시스템반도체 수요 회복 지연, 파운드리 가동률 하락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4.2% 감소한 5.9조원을 기록
-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7.5% 감소, 전분기 대비 24.1% 증가한 9.1조원을 기록, 매출은 1분기 5.1조원을 저점으로 점진적 개선
- D램 매출(매출 비중 67%)은 전년동기 대비 14% 감소, 전분기 대비 34% 증가한 6.1조원, 낸드플래시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0% 감소, 전분기 대비 24% 증가한 2.7조원을 기록
- \* D램은 엔비디아에 고부가 HBM 등을 공급하면서 전분기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
-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은 가격하락 등으로 3~4분기 연속 영업손실이 지속되었으나 반도체 재고평가손실 충당금 환입 등으로 손실폭은 개선
- 삼성전자 DS부문은 3분기 연속 약 4조원 내외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손실폭은 전분기 대비 6,100억원 감소한 3.8조원, 영업이익률은 △23%를 기록
- SK하이닉스는 4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D램 수익성이 2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되고 일부 재고평가손실 충당금 환입 영향 등으로 영업이익률 △20% 기록
- \* 영업손실 : ('22.4분기)1.9조원 → ('23.1분기)3.4조원 → (2분기)2.9조원 → (3분기)1.8조원

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



주: 전년동기 대비 매출증가율  
자료: 블룸버그 및 전자공시시스템.

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



4) Device Solution으로 반도체사업을 포함



## (수출) 3분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3% 감소한 262억 달러 기록, 5분기 연속 역성장

-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8% 감소한 133억 달러를 기록, 5분기 연속 역성장했으나 수출감소폭은 전분기 대비 축소

\* 메모리반도체 수출증감률(전년동기 대비, %): ('23.1분기)△51.2 → (2분기)△48.2 → (3분기)△28.3

-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가격하락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 감소

- 비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7% 감소한 129억 달러를 기록, 3분기 연속 역성장

-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1% 감소한 86억 달러, 아날로그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% 증가한 29억 달러를 기록

- 대중국(홍콩 포함)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6%, 대베트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1% 감소

- 대중국 수출은 메모리반도체는 전년동기 대비 27%, 비메모리반도체는 전년동기 대비 24% 감소하면서 140억 달러를 기록

- 베트남 수출은 메모리반도체는 전년동기 대비 35%, 비메모리반도체는 전년동기 대비 13% 감소하면서 31억 달러를 기록

- 반도체 수출물가 지수(2015=100)는 2022년 3분기부터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5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하락, 반도체 수출물량지수(2015=100)는 2분기 연속 상승

-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19% 상승했으나 반도체 수출물가지수는 5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하락했으며 전분기 대비 하락폭은 축소됨

\* 수출물량지수: ('22.3분기)352 → (4분기)327 → ('23.1분기)279 → (2분기)353 → (3분기)42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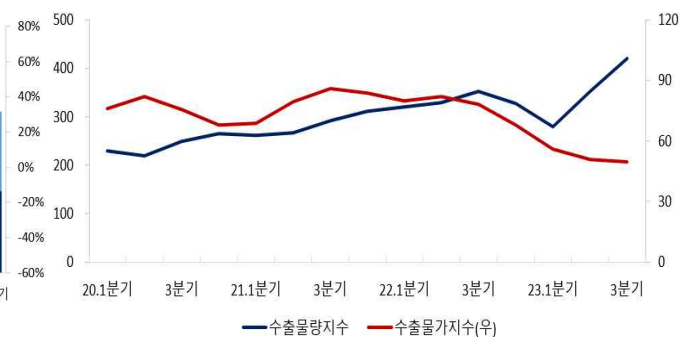
\* 수출물가지수: ('22.3분기)78 → (4분기)68 → ('23.1분기)56 → (2분기)51 → (3분기)50

반도체 수출액 추이

단위: 억 달러



반도체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물가지수



주: 수출물량지수와 수출물가지수는 2015=100, 원화 기준.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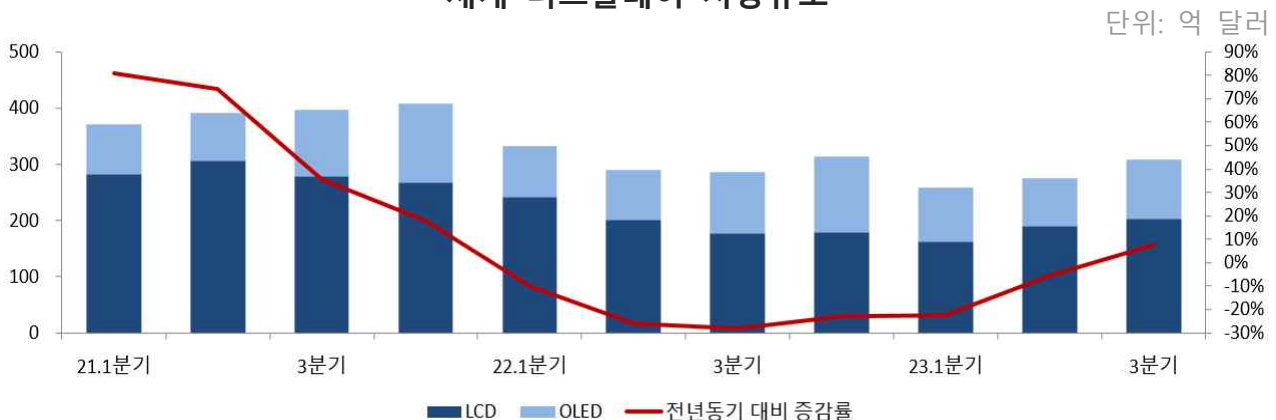


## II. 디스플레이

### (세계시장) 3분기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6분기만에 성장세로 전환

- (LCD) LCD 시장은 6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 감소했으나, 3분기에는 TV 패널 수요 개선 및 패널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5% 성장
  - LCD TV 시장은 패널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1% 증가했으며 대형 패널 선호, TV 패널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3% 성장
    - 주요 TV 제조사들은 연말 성수기에 대비하여 패널 구매를 확대하면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
  - LCD 모니터 패널 시장은 패널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19%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20% 성장
- (OLED) OLED 시장은 스마트폰용 패널 출하량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TV 패널 수요 부진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.7% 역성장
  - 스마트폰용 패널 시장(매출비중 79%)은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14% 증가했으나 패널 평균 판매 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12% 하락하면서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
    - 스마트폰 시장의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는 견조
  - TV용 패널 시장(매출비중 8%)은 패널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% 감소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24% 역성장, 4분기 연속 두 자릿수 역성장 지속
  - 모니터용 OLED 패널 시장은 게임용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29%, 노트북용 패널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8% 성장했으나 태블릿용 패널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9% 역성장

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



자료: 옴디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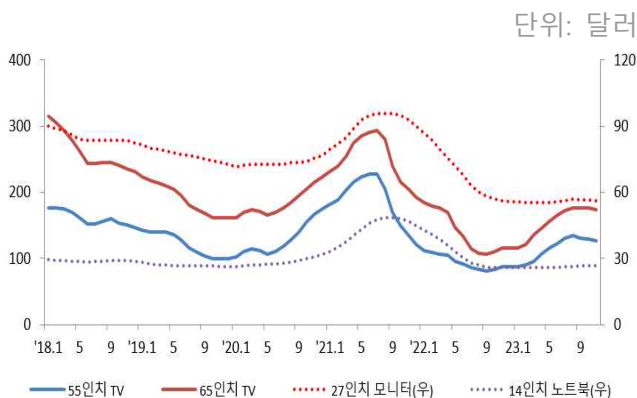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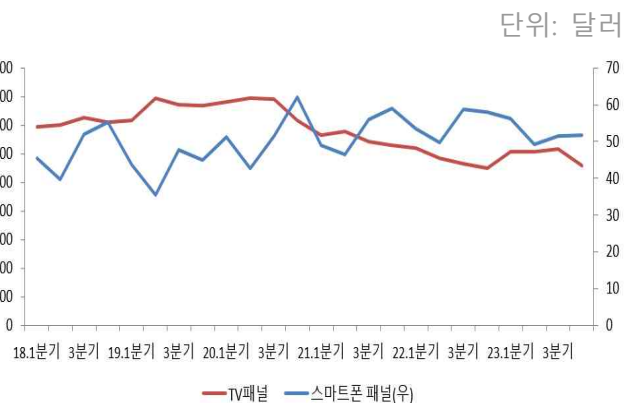
## (가격) LCD TV 패널 가격은 3분기까지 상승했으나 10월부터 하락세로 전환, OLED TV 패널 평균 판매가격은 3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.5% 상승했으나 10월부터 하락

- (LCD) LCD TV 패널 가격은 1분기에 재고조정이 일단락되고 주요 기업의 공장 가동률 조정 등으로 2분기에 전분기 대비 25%, 3분기에 전분기 대비 13% 이상 상승
  - 55인치와 65인치 UHD(Ultra High Definition, 4K 해상도) TV 패널 가격은 각각 전분기 대비 14%, 13% 상승한 131달러와 175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각각 58%, 60% 상승
  - 주요 기업은 TV 패널 수주 시 생산하는 전략(Production to order)을 통해 팹 가동률을 조정, 우리기업은 국내 LCD TV 패널 생산 중단<sup>5)</sup> 및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공장을 50%로 축소 운영
  - 4분기 LCD TV 패널 가격은 고객사의 패널 재고 증가, TV 수요 감소 등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2024년 1분기까지 가격하락세가 지속될 전망
- (OLED) 3분기 OLED TV와 스마트폰 패널의 평균 판매가격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9% 상승, 12% 하락했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각각 2%, 5% 상승
  - OLED TV 패널 평균 판매 가격은 팹 가동률 조정 등으로 3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9.1%, 전분기 대비 1.8% 상승했으나 4분기에는 수요감소 등으로 하락 전환될 전망
  - \* OLED TV 팹 가동률 : (7월)44% → (8월)53% → (9월)55% → (10월)56% → (11월)48%
  - 모바일용 OLED 패널 평균 판매 가격은 3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2% 하락, 전분기 대비 4.8% 증가했으며 4분기에는 아이폰15 출시효과 등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할 전망

LCD 패널 가격



OLED 패널 평균 판매가격



자료: 옴디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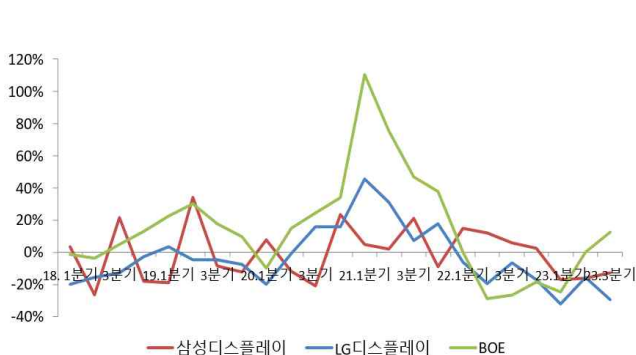
5)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6월에 대형 LCD 패널 생산을 종료했으며 하반기에는 기계약품 TV 패널을 출하하고 12월에는 LCD사업 전면 철수. LG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국내 LCD TV 패널 생산을 중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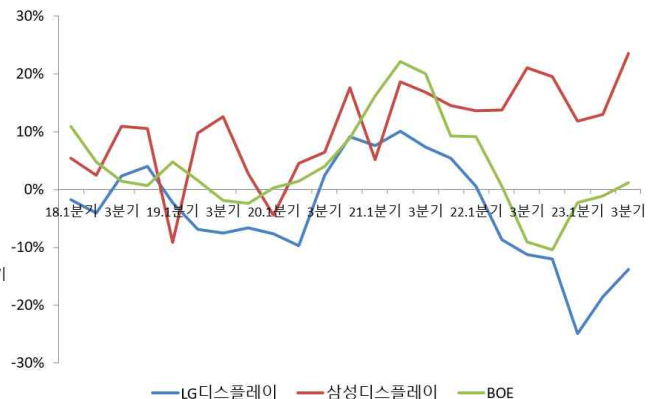
## (기업) 3분기 주요 기업의 성장성은 둔화되었으나 수익성은 사업 포트폴리오 등에 따라 차별화 지속

- (삼성디스플레이) 3분기 매출은 모바일용 OLED 패널 경쟁 심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3% 감소한 8.2조원을 기록
  - 매출은 모바일용 OLED 패널 경쟁 심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3% 감소했으나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(아이폰15 등) 등으로 전분기 대비로는 27% 증가
    - 삼성디스플레이는 중저가 스마트폰에는 리지드(Rigid, 유리기판 사용) OLED, 프리미엄폰에는 플렉시블(Flexible, 박막봉지(Thin Film Encapsulation) 사용) OLED 패널을 공급
    - 중국 디스플레이기업은 플렉시블 OLED에 주로 투자했으며,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스마트폰기업에 공급하는 리지드 패널보다 낮은 가격에 플렉시블 패널을 공급하며 점유율을 확대
  -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 영업이익(1.98조원)을 기록한 전년동기 대비 2% 감소한 1.94조원을 기록했으며, 영업이익률(24%)은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달성
- (LG디스플레이) 3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9% 감소한 4.8조원을 기록
  - 매출(OLED 비중 42%)은 IT제품 수요 회복 지연, 애플의 아이폰15용 패널\* 양산 승인 지연, LCD TV 패널 사업 축소<sup>6)</sup>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9% 감소했으나 전분기 대비 1% 증가
    - \* 아이폰14는 아이폰14, 아이폰14 Plus, 아이폰14 Pro, 아이폰14 Pro Max로 구성되며 고가 Pro 모델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패널을 공급
  - LG디스플레이는 6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, 2022년 2분기에 8분기만에 손실로 전환된 이후 손실이 지속되었으나 손실폭은 축소되는 추세
    - \* 영업손실(조원) : ('22.3분기)0.8 → (4분기)0.9 → ('23.1분기)1.1 → (2분기)0.9 → (3분기)0.7

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



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



주:BOE의 영업이익은 중국 정부 보조금 포함.

자료: 전자공시시스템 및 각사 홈페이지.

6) 2022년말 국내 LCD TV 팹 생산 종료



## (수출) 3분기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0.8% 감소한 60.2억 달러 기록, 코로나19 특수가 사라지면서 5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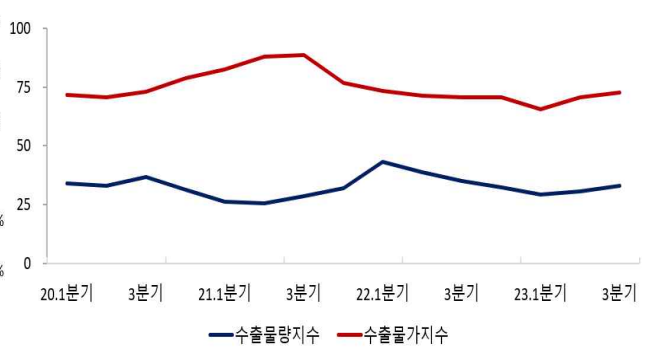
- OLE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6.2% 증가한 41.0억 달러, LC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3% 감소한 11.9억 달러를 기록
    - OLED 수출은 TV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등으로 증가
      - 2023년 세계 OLED TV 출하량은 전년 대비 19% 감소한 560~570만대로 전망(DSCC)
    - LCD 수출은 국내기업의 LCD 구조조정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 지속
  - 대베트남 수출은 10.6% 증가했으나 대중국(홍콩 포함) 수출은 21.6% 감소
    - 베트남 수출(수출비중 69%)은 한국기업의 휴대폰·TV 해외 생산기지로 OLED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% 증가했으나 LCD 수출이 15% 감소하면서 37억 달러를 기록
    - 중국 수출(수출비중 20%)은 중국 디스플레이기업의 성장 등으로 OLED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39%, LCD 수출은 19% 감소하면서 11억 달러를 기록
  - 디스플레이 수출물가지수(2015=100)와 수출물량 지수(2015=100)는 1분기를 저점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각각 전년동기 대비 각각 2%, △6% 성장
    - 디스플레이 수출물가지수는 7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하락했으나 3분기에는 LCD TV 패널 수출물가회복 등으로 전분기 대비 7% 상승
- \* 디스플레이 수출물가지수: ('22.3분기)70.8 → (4분기)70.6 → ('23.1분기)65.7 → (2분기)70.6 → (3분기)72.6
- 디스플레이 수출물량지수는 2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 하락(△32%~△21%)했으나 3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한 자릿수로 하락폭 축소(△6%)
- \* 디스플레이 수출물량지수: ('22.3분기)35.0 → (4분기)32.4 → ('23.1분기)29.3 → (2분기)30.6 → (3분기)32.8

디스플레이 수출액

단위: 억 달러



디스플레이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물가지수



주: 수출물량지수와 수출물가지수는 2015=100, 원화 기준. 부분품은 편광판, BLU 등.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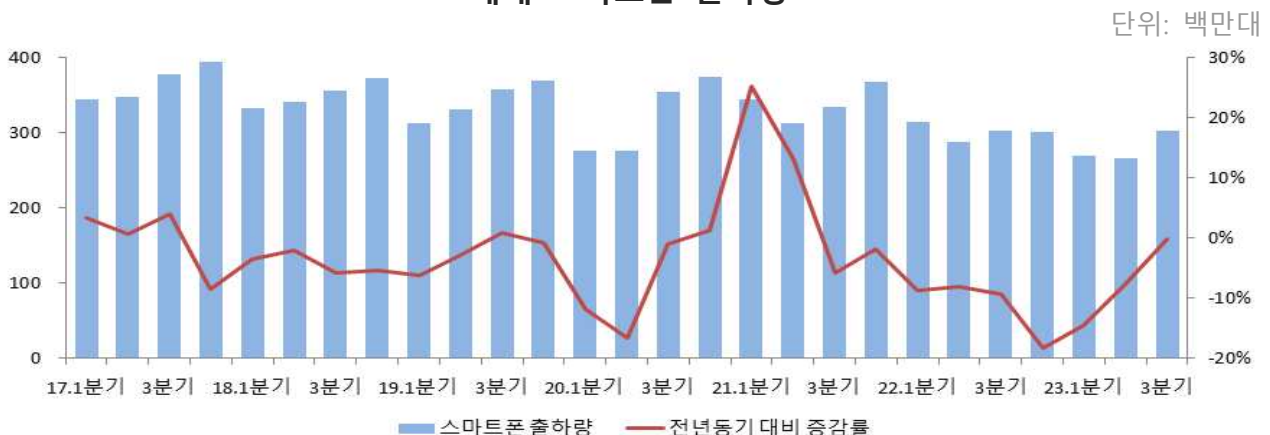


### Ⅲ. 휴대폰

#### (세계시장)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0.1% 감소한 3.0억 대를 기록

- 개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했으나 중국, 미국, 유럽의 스마트폰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9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
  -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청년 실업률 상승, 부동산 위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.3% 감소한 67.1백만대를 기록, 10분기 연속 역성장했으나 감소폭은 축소되는 추세
  - 8월말 미국의 제재 대상인 화웨이가 5G폰 'Mate 60프로'를 발표한 이후 타 중국 스마트폰기업들도 프리미엄폰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폭 축소
  -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수준인 43.5백만대를 기록
    - \*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감률(전년동기 대비): ('22.4분기)△27% → ('23.1분기)△16% → (3분기)△0%
  - 중동·아프리카, 중남미, 아태지역(중·일외)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8.1%, 8.2%, 1.3% 증가했으나 미국과 유럽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.1%, 8.6% 감소
- 스마트폰 시장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프리미엄폰 시장이 성장하고 중저가폰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중고폰(리퍼폰) 구매가 증가하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
  - 3분기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중 프리미엄폰(600달러 초과~800달러 미만)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52%, 초고가폰(800달러 이상)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43% 증가 이상
  - 중고폰 시장은 스마트폰 혁신 둔화, 경제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성장하고 있음

세계 스마트폰 출하량



자료: IDC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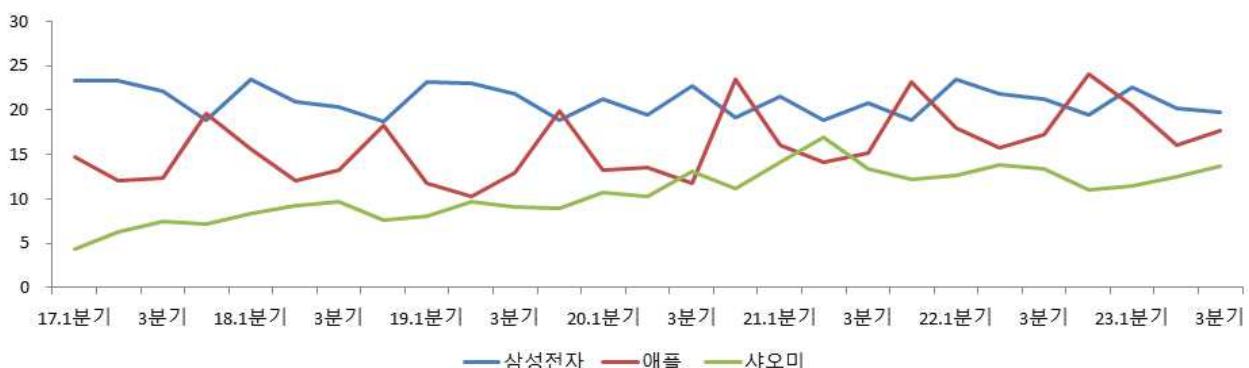


## (출하량) 상위 3개 기업중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만 역성장했으며 애플과 샤오미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2.5%, 2.4% 증가

- 삼성전자의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8.4% 감소, 시장점유율은 19.7%를 기록
  -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폴더블폰 신모델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2월에 출시된 갤럭시S23의 출시 효과 감소, 중저가 시장 회복 지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8.4% 감소
  - 인도에서는 삼성전자가 1위를 탈환하면서 시장점유율은 16.2%를 기록했으나 2위 기업과의 시장점유율 격차는 1.1%p에 불과
  - 삼성전자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1% 수준, 중국의 폴더블폰 시장점유율은 3분기 기준 21%로 화웨이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나 중국기업의 성장으로 경쟁심화<sup>7)</sup>
- 애플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2.5% 증가, 시장점유율은 17.7%를 기록
  - 아이폰은 중국외 대부분 지역에서 선전했으며 인도의 아이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0.8% 증가
  - 중국은 미중갈등 심화로 공무원·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림
  - 신모델 아이폰15가 9월 22일 출시되어 신모델 출시 효과는 거의 반영되지 못함
- 샤오미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중남미, 아프리카 등 신흥국 판매호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.4% 증가, 시장점유율은 13.7%를 기록
  - 샤오미의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 호조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대비 0.1% 증가하면서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(△6.3%) 대비 양호한 실적을 기록

### 주요 기업 스마트폰 시장점유율

단위: %



주: 출하량 기준.  
자료: IDC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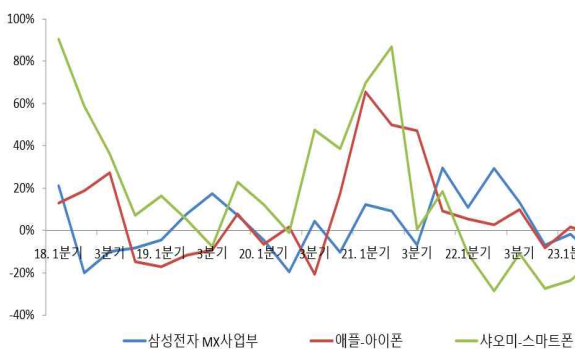
7) 카운터포인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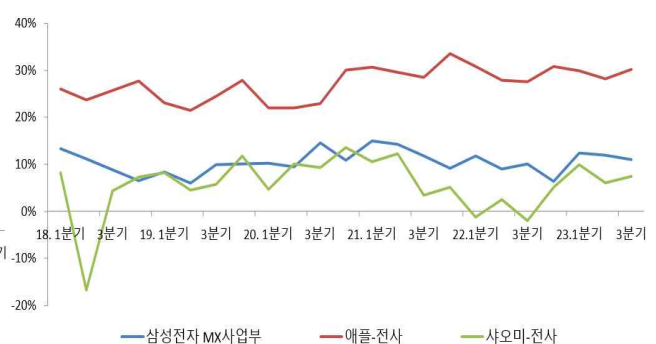
## (매출·수익성) Top 3 기업중 애플만이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으나, 수익성은 평균 판매가격 상승, 원가절감 노력 등으로 3사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임

- 삼성전자 MX/네트워크사업부 3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6.9% 감소, 영업이익은 비용관리, 운용 효율성 제고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% 증가
  - 매출은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등에 영향을 받았으나 영업이익은 자원 효율화 등으로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 11% 기록
- 애플의 3분기 스마트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.8%, 전사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8.3% 증가
  - 아이폰 매출은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, 초고가 모델 중심의 사업구조 등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
  - 애플의 전사 영업이익률<sup>8)</sup>은 프리미엄폰 시장의 높은 지배력과 서비스 사업(애플케어<sup>9)</sup>, 애플 뮤직 등) 등으로 30%를 기록
- 샤오미의 3분기 스마트폰 매출은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.0% 감소, 전사 영업이익률은 7.4%를 기록
  -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중남미, 아프리카 등 신흥국 스마트폰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.8% 감소한 997위안(18.2만원)을 기록

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



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



주: 애플과 샤오미의 영업이익률은 전사 기준.  
자료: 블룸버그 및 전자공시시스템.

8) 애플의 매출비중(3분기)은 아이폰 49%, 서비스 25%, 맥 9%, 아이패드 7% 순

9) 보험과 유사한 애플의 기기보증 서비스





## (수출) 3분기 휴대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2% 감소, 전분기 대비 23% 증가한 31억 달러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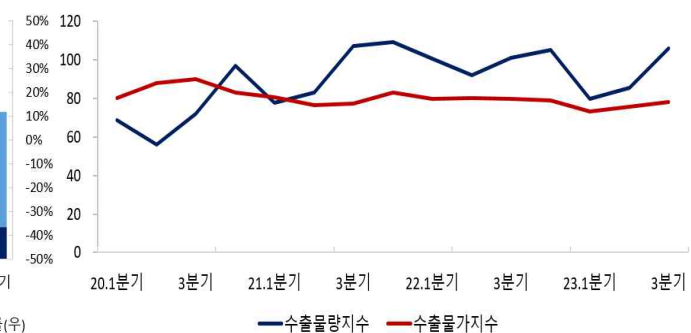
- 부분품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%, 완제품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9% 감소
  - 부분품 수출은 스마트폰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24억 달러를 기록
  - 완제품 수출은 스마트폰 수요 위축, 삼성전자의 OEM/ODM 생산비중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% 감소하면서 7억 달러를 기록
  - \* 국가별 수출 비중은 미국 54.1%, 일본 11.1%, 영국 4.4%, UAE 4.3% 순
- 대미 수출은 견조, 대중국(홍콩 포함) 수출은 양호했으나 대베트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
  - 대중국 수출은 주요 스마트폰 기업의 하반기 신제품 출시 등으로 부분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4% 증가한 15.8억 달러를 기록
  - 대미국 수출은 완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147% 증가한 4.0억 달러를 기록
  - 대베트남 수출은 우리기업의 스마트폰 생산기지로의 부분품 수출 등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3.5% 감소한 5.3억 달러를 기록
- 휴대폰 수출물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5%, 전분기 대비 24% 증가, 수출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2% 감소, 전분기 대비 3% 증가
  - \* 수출물량지수: ('22.3분기)101 → (4분기)105 → ('23.1분기)80 → (2분기)85 → (3분기)106
  - \* 수출물가지수: ('22.3분기)80 → (4분기)79 → ('23.1분기)73 → (2분기)76 → (3분기)78

휴대폰 수출액

단위: 억 달러



휴대폰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물가지수



주: 수출물량지수와 수출물가지수는 2015=100, 원화 기준.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.





## IV. 향후 전망

### 반도체산업은 메모리반도체 업황의 풍향계 역할을 담당하는 마이크론의 4분기 실적(9~11월)이 예상치를 웃돌아 메모리반도체산업 업황개선을 기대

- 마이크론은 메모리반도체기업중 가장 빨리 실적을 발표하여 메모리반도체 업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6개 분기만에 전년동기 대비 성장세로 전환
- 마이크론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6%, 전분기 대비 18% 증가한 47억 달러를 기록
  - D램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1%, 전분기 대비 24% 증가한 34억 달러, 낸드플래시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2%, 전분기 대비 2% 증가한 12억 달러를 기록
  - D램과 낸드플래시 평균판매가격은 각각 전분기 대비 한 자릿수 초반, 약 20% 증가
  - 모바일 부분의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97%, 전분기 대비 7% 증가, 컴퓨터 및 네트워킹 사업부(CNBU)<sup>10)</sup>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% 감소, 전분기 대비 45% 증가하여 모바일 수요는 회복세에 진입했으나 서버 부분의 수요는 회복중인 것으로 추정
- 마이크론은 2024년 1분기 매출(12~2월)이 전년동기 대비 38~50%, 전분기 대비 약 8~17%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메모리반도체 업황의 지속적 개선을 기대
- AI의 성장 등으로 2024년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2025년에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

### 중국의 중소형 OLED 패널 시장점유율(출하량 기준)이 2023년에 40%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4년에는 한중간 중소형 OLED 경쟁이 심화될 전망

- 중소형 OLED 패널 출하량 기준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22년 70.2%에서 2023년 57.1%,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동기간 28.1%에서 41.4%로 상승할 전망
- 2023년 중소형 OLED 패널 출하량은 전년 대비 6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기업의 출하량이 전년 대비 57% 증가하면서 출하량 증가를 견인
- 중국은 중소형 OLED 생산능력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저전력 LTPO (Low Temperature Polycrystalline Oxide, 저온다결정산화물) 양산 기술 등을 확보
  -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기업 BOE는 애플 아이폰15에 아직 LTPO 패널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중국 스마트폰 기업 등에 LTPO 패널을 공급

10) 서버 등의 고객대상 사업부



- 폴더블폰 패널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최대 공급사이나 4분기에는 BOE가 화웨이, Honor, Oppo 등의 폴더블폰 신모델에 패널을 공급하면서 1위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음
- 삼성디스플레이의 폴더블폰 패널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는 8월에 폴더블폰 신모델(갤럭시 폴드 5, 갤럭시Z플립5)을 출시하여 4분기 폴더블폰 패널 수요는 둔화 예상
  - \* 삼성디스플레이의 폴더블폰 패널 점유율: (2분기)63% → (3분기)74% (DSCC)
- 중국 디스플레이기업은 OLED 사업에서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, OLED 시장점유율을 일정 부분 확보하자 하반기부터 수익성 개선을 위해 가격 인상을 추진
  - 디스플레이는 고정비가 높은 산업으로 중국 디스플레이기업은 낮은 OLED 팹 가동률 재고, 스마트폰기업과 협력관계 구축 등을 위해 저가 판매에 집중
  - 중국 디스플레이기업은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성장했으며 지방정부 등은 OLED 사업의 재무실적을 기대하는 것으로 추정됨
  - 중국 디스플레이기업이 플렉시블 OLED 패널 가격을 인상하자 중국 스마트폰기업들은 다시 삼성디스플레이의 리지드 패널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

## 2023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3.5%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4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3.8% 증가할 전망

- 2023년 4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연말 쇼핑 시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7.3% 증가하나 2023년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3.5% 감소할 것으로 추정
  - 4분기에는 아이폰 신모델 출시효과가 본격화되고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화웨이의 Mate 출시 이후 화웨이 부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활기를 찾으면서 스마트폰 구매 증가,
  - 2023년 스마트폰 시장은 인플레이션, 고금리 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, 제품 교체 주기 장기화, 스마트폰 상향 평준화, 중고폰 시장의 성장 등으로 2년 연속 역성장 전망
  - \* 스마트폰 출하량은 감소하나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전년 대비 5.5% 상승한 438달러로 추정
- 2024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On-Device AI 탑재 등으로 전년 대비 3.8% 증가할 전망
  - On-Device AI가 스마트폰 핵심 경쟁 요소로 대두되면서 스마트폰 교체 수요를 촉발할 것으로 기대
  - 삼성전자는 생성형 AI모델 '가우스'를 공개하고 2024년 1분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S24에 탑재할 계획